구미래의 새롭게 만나는 불교의례 ❻ 생전예수재 上



▶한줄요약

비일상의 불안한 시간에 위신력 있는 불보살에게 의지하는 것은 인간 보편의 심성. 살아있을 때 사후 위해 올리는 예수재와 '저승문 열린다'는 윤달의 결합은 더없이 자연스러운 귀결인 셈.

비일상의 시간 '윤달'과 '예수재'의 결합

생전예수재, 생전에 만드는 수의

올해는 이월에 윤달이 들어 사찰마다 일찌감치 생전예수재(生前預修齋) 입재 법회를 봉행한 소식이 분주하다. 백여 년 전인 1917년에 순천 송광사에서 예수재를 행한 기록이 전하는데, 당시의 예수재도 윤이월이었다. 이는 통영에 거주하는 부부를 위한 독설판 예수재로, 윤 2월 2일에 입재하여 열사흘이 지난 14일에 회향했다고 한다. 당시 지전을 만드는 조전소(造錢所)를 설치하고, 각종 번(幡)과 개(蓋), 지화와 서기포(瑞氣布) 등의 장엄을 갖추어 의식문에 따라 봉행한 여법한 예수재였다.

이처럼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백 년 전에도 예수재는 윤달에 주로 행했음을 알 수 있다. 예수재는 사후왕생을 위해 생전에 미리 공덕을 짓는 불교의례로, 본래 특정 시기와 무관했으나 점차 윤달의 대표적인 의례로 자리하게 된 것이다.

'윤달 예수재'가 성행하게 된 시기는 조선말 근대 초로 추정된다. 그 이전과 달리 1910년대에 와서 예수재를 윤달에 행한 기록이 집중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앞의 송광사 사례를 비롯해, 〈매일신보〉에는 대각사 용선스님이 1911년부터 윤달이 드는 해마다 예수재를 시작했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 따라서 현재 예수재가 윤달과 짝을 이루어 성행하게 된 배경에 주목해보면, 예수재에 대한 이해 또한 깊어질 법하다.

예수재는 자신의 죽음을 내다보며 행하는 의례로, 다음 생에 살아가면서 갚아야 할 과보(果報)를 살아있는 동안에 미리 갚는 성격을 지녔다. 이에 죽어서 행할 일을 미리 한다고 하여 '역수(逆修)'라는 말을 쓰기도 한다. 민간의 풍습 가운데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데, 바로 사후에 입을 수의(壽衣)를 생전에 미리 만드는 문화이다. 따라서 '예수재'와 '수의 만들기'는 모두 대표적인 죽음준비문화라 할 수 있다.

〈삼국지〉 위서에 기록하기를, "고구려 사람들은 남녀가 혼인하면 죽어서 장사지낼 때 입고갈 옷을 미리 만든다"고 하였다. 연로한 부모의 수의뿐만 아니라 자신의 수의까지 미리 마련해둔 것이다. 수의는 장수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 목숨 '수(壽)' 자를 쓸 뿐만 아니라, "수의를 미리 만들어놓으면 장수한다"는 담론도 널리 확산되어 있다. 이는 살아있을 때 죽음을 준비하는 일이 불길하거나 나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오히려 죽음을 긍정적 · 적극적으로 껴안아 복을 얻을 수 있다고 여김으로써 불가항력의 죽음을 극복했던 셈이다.

옛 노인들은 살아생전에 자신의 수의를 만드는 자식들을 기특하고 흡족하게 여겼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가족들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들도 같이 수의 만들기를 거들다 보면, 음식도 장만하고 농담도 해가면서 즐거운 시간이 된다. 죽음을 예비하는 자리에서 슬픔이나 엄숙함은 찾아볼 수 없고, 마치 작은 잔치처럼 떠들썩한 분위기가 연출되는 것은 외국인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해하기 힘든 모습이다.



봉은사 예수재. 지전과 경전을 머리에 이고 중정을 도는 스님과 신도들.

수의 만들기는 이른 시기부터 윤달의 풍습으로 자리를 잡았다. 〈중종실록〉을 보면 1720년(숙종 46)에 숙종이 세상을 떠났을 때, 중전이 하교하는 내용 가운데 "윤달에 의대(衣襨)를 미리 준비해 두었다"는 기록이 있다. 이때의 의대는 수의를 말하는 것으로, 적어도 1700년대 초에는 윤달에 수의를 장만하는 풍습이 정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복된 죽음을 준비하는 윤달문화

그렇다면 윤달의 특성을 살펴보자. 1895년부터 우리는 양력 중심의 삶을 살고 있지만, 이전에는 음력이 일상의 시간을 가늠하는 역법(曆法)이었다. 따라서 음력을 상용하던 당시 윤달의 의미는 지금과 큰 차이를 지닌다. 1년 열두 달이라는 안정된 주기 속에 또 하나의 달이 끼어든다면 일상이 흐트러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일상의 시간을 나름대로 해석하고 적응해온 모습이 곧 윤달문화라 하겠다.

따라서 고려시대에는 윤달이면 사면령을 내려 죄수를 풀어주고, 노인과 소외된 이, 의로운 이들에게 음식과 물품을 지급하였다. 왕이 사찰에 행차해 불공을 올리거나 선왕의 능을 배알하는가 하면, 많은 스님을 모시고 백좌도량(百座道場)을 열거나 액을 물리치는 소재도량(消災道場) 등을 베풀었다. 이는 모두 윤달이라는 불안하고 비일상적인 시간을 안전하고 복되게 맞으려는 노력이라 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민간에서는 윤달을 공달 · 덤달 · 여벌달이라 부르면서, 이때는 인간사를 관장하는 신들도 감시를 쉰다고 여겼다. 따라서 평소 택일이 따랐던 중요하고 조심스러운 일을 거리낌 없이 행하며, '윤달에는 송장을 거꾸로 세워도 탈이 없다'는 담론까지 생겨났다. 특히 죽음과 관련된 일은 부정(不淨)이 따른다고 보았기에, 수의는 물론 관과 묏자리 준비, 산소 이장 등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윤달에 주로 행해진 예수재
'산 자의 천도' 역할 담당해
수의 입고 즐긴 축제 성격서
긍정적인 민간 지혜 엿보여

아울러 윤달에는 '저승문이 열린다' 하여 복된 내세를 기원하는 풍습이 성행하게 된다. 대표적인 사례로 전북 고창지역 등의 성밟기는 '윤달에 성을 세 바퀴 돌면 저승길이 트여 극락에 간다'는 믿음과 결합되어 있다. 고창 모양성(牟陽城)의 진입로인 북문은 아예 '극락문'이라 불린다. 이는 '인간을 감시 · 심판할 신이 없다→ 저승문이 열린다→ 극락을 갈 수 있다'는 일련의 윤달 담론을 기반으로 한 것이라 하겠다.

19세기 중반의 〈동국세시기〉에도 "봉은사(奉恩寺)에서는 윤달이 되면 장안의 부녀자들이 몰려와 불단[佛榻]에 돈을 놓고 불공을 드린다. 이렇게 하면 극락으로 간다고 여겨 정성을 다하는데, 달이 다 가도록 이어지는 풍습이다. 서울 외의 여러 절에서도 그러하다"고 하였다. 윤달에 불공을 올리며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풍습이 전국에 성행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기록이다.

이처럼 윤달에 대한 관념과 담론은 '복된 죽음을 준비하는 문화'를 전승시켜왔고, 그 과정에서 불교의 역할 또한 커지게 마련이었다. 유교에서 감당하지 못한 사후 구원의 문제는 불교의 영향권 하에서 '극락왕생' 발원을 통해 해결해왔기 때문이다. 그뿐 아니라 고려시대의 윤달풍습에서 보듯이, 비일상의 불안한 시간에 위신력 있는 불보살에게 의지하는 것은 인간 보편의 심성이다. 따라서 살아있을 때 사후를 위해 올리는 예수재와 윤달의 결합은 더없이 자연스러운 귀결인 셈이다.



작약산 예수재. 바퀴가 달린 반야용선을 타고 즐거워하는 신도들.



고창의 모양성 밟기. ©동아일보사

특히 16 · 17세기에 들어와서 의례를 통해 현실의 고난을 극복하고자 수륙재를 비롯한 각종 천도재가 성행하였고, 예수재 또한 '망자의 천도'와 함께 '산 자의 천도'를 위한 역할을 담당해왔다. 약 삼 년마다 돌아오는 윤달의 주기 또한 대형 의례를 연례적으로 치르는 데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기에 적합했을 것이다.

축제적 예수재

이러한 일련의 죽음 준비문화와 관련해 축제적 성격의 예수재 모습이 주목된다. 먼저 김희균 선생이 기록으로 남긴 1980년대 거제도에서 행한 예수재를 살펴보자. 당시 예수재는 괘불을 모시고 상단 · 중단 · 하단을 장엄하게 차린 채, 범패와 작법을 하는 스님들과 수많은 동참재자가 함께하여 오전 9시부터 자정을 넘길 때까지 여법하게 치러졌다.

"노인들은 모두 준비해온 수의를 입는다. 이승을 떠나 저승길에 갈 때 입고갈 옷들을 윤달 든 그 달에 준비해두었다가 예수재 날 미리 저승길에 가보면서 입고, 다시 고이 접어두었다가 진짜 가시는 날 자손의 손에 의해 입혀지게 된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수의' 하면 '삼베옷' 하던 통념을 깨고 아들딸 혼인식장에 입고 가는 것처럼 울긋불긋 비단옷이 삼베옷 사이를 수놓았다. 그리고 수의를 입은 노인들 모두가 희색이 만면했던 것이다."

동참재자들이 너도나도 수의를 입고 예수재를 치렀을 뿐만 아니라, 분위기 또한 마치 잔치처럼 흥겨웠음을 알 수 있다. 그뿐 아니라 "죽을 때 좋은 옷 입고 가야 이 세상에 다시 올 때 좋은 집에 태어난다", "죽을 때 즐겁게 죽어야 저승길이 순탄하며 이생에 다시 온다"며 덩실덩실 춤판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이에 그는 '죽을 때 즐겁게 죽어야 한다'는 의식의 변화에 불교가 기여했음을 깊이 느꼈다고 한다.

예수재가 살아있을 때 미리 사후를 대비하는 의례이기에, 죽은 뒤 입기 위해 마련해놓은 수의가 등장하는 것은 민간의 관점에서 보자면 자연스러운 발상이다. 죽음을 대비하는 자리를 축제처럼 맞이하는 데서 긍정적이고 역동적인 민간의 지혜를 엿보게 한다. 이러한 모습의 예수재는 거제도만이 아니라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널리 성행하였다. 광제사 승범스님은 1990년대 밀양에서 치른 작약산 예수재의 정경을 들려주었다.

당시 큰스님은 대중에게 "오늘은 내 전생 업을 갚는 날이니 얼마나 좋은 날입니까. 여러분들 잔칫날이니 흥에 겨우면 춤추셔도 됩니다. 오늘만큼은 부처님 앞에서 춤을 춰도 좋은 날입니다"라고 하였다. 그러자 아흔이 넘은 할머니가 나와서 기쁘게 춤을 추었고, 칠십 대의 자식들이 그 모습을 보며 눈물 흘렸다는 것이다. 실제 필자가 2018년에 참관한 작약산 예수재에서도 반야용선을 타고 춤을 추는 신도들을 만날 수 있었다.

그런가 하면 무속에도 망자를 위한 오구굿을 산 자에게 적용하여 치르는 '산 오구굿'이 있다. 산 오구굿 또한 윤달에 주로 행하며 부산과 경남을 중심으로 동해안지역에 널리 전승되어왔는데, 학계에서는 예수재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다른 굿보다 불교적 색채가 강하여 굿을 주재하는 세습무 집단이나 기주(祈主)들이 불교의례로 인식할 정도로, 무속의 죽음 준비에도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굿을 의뢰하는 이들은 대개 노인들로, 사람이 죽으면 오구굿을 해야 좋은 곳에 간다고 믿는다. 그러나 사후 자신을 위한 굿을 확신할 수 없기에 미리 오구굿을 치름으로써 이를 대신하는 것이다. 산 오구굿의 구조를 보면 신들을 청해 축원한 다음 영혼을 천도하고, 이를 축하하는 놀이마당을 거쳐 '기주의 극락왕생'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

이처럼 예수재는 살아있을 때 죽음을 준비하는 일이 기쁘고 복된 것이라 여긴 민간의 지혜로운 삶과 함께 해왔다. 본래 불교의 천도재는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환희로운 자리이다. 따라서 '예수재'에서도 '산 오구굿'에서도 마음껏 즐거워할 수 있는 축제성은 죽음을 대하는 불교의 전통적 성격과 맥을 함께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불교와 민속의 성격은 일방의 흐름이 아니라 상호 영향력을 주고받았음은 물론이다. 예수재에서 산 오구굿이 파생되었듯이, 오랜 세월 기층의 간절한 바람이 담긴 굿의 원리 또한 예수재에 반영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불교민속연구소 소장〉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법당 전선시공 전문
승하강 장치시공(신형)



도량(만월등)조립식 프레임(간편한 설치 및 높낮이 조절)





공단연등(고리용)



전선간격
22cm, 25cm, 28cm, 30cm, 40cm, 50cm,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LED태양광 솔라
(국산정품)



LED전구 국산인증
(서울반도체 정품)



안전인증 ISO9001 ISO1400 특허청

정직과 신뢰의 불자기업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986-0277~8, 02)2266-2634
032)582-6235~6, 02)2263-2638
문의핸드폰 010-3630-7092
본사 · 공장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